

“국난극복·제2건국 앞장”

청와대 청불회 제2기 출범

직원 90명 가입... 회장 김태동 수석 복지시설 방문·교리공부 등 계획

청와대 불자직원들의 신행모임인 청불회가 9일 성북동 길상사에서 주지 청학스님, 박상규 국민회의부총재, 국민회의 배종무의원, 조성준의원을 비롯하여 4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제2기 회장에 김태동 정책기획수석을 선출하고 하반기 활동계획들을 확정했다.

김태동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기 청불회가 교계의 각별한 관심속에 재출범하게 됐다”며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에 동참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청불회는 회칙을 개정하고 16일 오후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열기로 했다. 개원법회는 석주스

님의 법문과 월주스님의 축사, 청불회원들의 1박8배정진 순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매일 정기법회 및 초정법회 개최, 10월경 1박2일 간이수련회, 길상사 교리강좌에 단체접수, 연등회 자민련불자회 정각회 감사원불자회와 교류를 통한 친목도모, 사회복지시설방문, 회원단합을 위한 각종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하반기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신임임원에는 부회장에 박주선 법무비서관, 박준영 공보비서관, 사무국장겸 교화간사 정은성 통치사료비서관, 총무간사 김경일 행정관 현제명 경호관, 재무간사 박인복 행정관, 섭외간사

김형욱 행정관이 임명됐다. 청불회는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직원 9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모든 불자의 열원인 불국토도 구현과 남북통일을 위해 상구부리하와중생의 보살행 실천을 목적으로 96년 8월26일 창립했다. 1기 회장직이었던 박세일수석과 이각범수석 배재욱비서관이 주축이며 발족한 청불회는 정권이 교체되며 잠시 침체를 맞았으나 지난 4월부터 김태동수석을 주축으로 여러 차례 모임을 갖은 끝에 제2기 청불회가 공식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탑쌓아 올리듯 육바라밀 정진

청불회 제2기 회장 김태동 수석



“불교의 근본수행법인 팔정도과 육바라밀 정진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에 동참하는 참불자들이 되겠습니다.” 9일 청와대불자회 정기총회에서 제2기 회장에 선출된 김태동수석(50세, 정책기획수석)은 호국불교정신과 자비사상에 입각하여 불법을 수호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매달 정기법회를 개최하는 등 탑을 쌓듯 정진으로 청불회 융성불사가 이뤄지도록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회장은 회원단합을 이취 민족문화 계승 및 발전과 불교흥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나라와 국민위한 경승기원법회

건국 50주년 기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경승기원대법회’가 8일 서울 경찰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회에서 경찰청 경승실장 자우스님은 “경승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인 경찰불교협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11들을 맞은 경찰청 경승기원법회에는 과장급이상 간부전원과 34개 경찰서 경승 40명 등 사부대중 2백50명이 참석했다.



광진구 재가노인 보호소 개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8일 오후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정영섭 광진구청장, 조계종사회부장 늘남, 홍순원 서울동부경찰서장 등 지역주민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진구 재가노인주간보호소 개소식을 가졌다. 노인주간보호소는 자양3동 성보빌딩 3층에 65평의 공간을 마련, 매일 차매·중증 및 심신 허약 노인 25명에게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승가원 서울 번2동 어린이집 개원

중앙승가대 부설 사회복지법인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립 번2동 어린이집(원장 권현자)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북장애인복지관장 해청스님, 소책새마을원장 보각스님과 정정식 강북구청장, 권현자 원장을 비롯 지역주민 4백여명이 참석했다. ‘번2동 어린이집’은 대지 145평, 건물 200평, 지하층, 지상3층 규모, 승가원 법인산하 종사자 16명이 154명의 어린이를 돌보게 된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모임 발족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 김영호 경북대학교수)이 9월9일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시 서문로에 사무실을 개원했다. 대구경북지역 정신대할머니를 도왔던 여성단체와 대학동아리를 중심으로 지난 해 12월 31일 결성된 이 모임은 훈할머니를 비롯 정신대할머니 여섯명을 보살피고 있다. 약 3백명의 회원들은 교수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인과 재일교포도 포함돼 있다.

탐방 승파구청 반야회



승파구청 반야회는 분기별 사찰순례법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강원도 평창 법흥사에서 임원단이 자리를 함께 했다.

관내 25개 사찰과 유대 강화

96년 창립... 회원 60명 타종교인도 행사 참여 사찰행사 지원·민원 해결

발원형식의 새건물이 세련돼 보이는 서울 승파구청. 정사에 들어서자 96년 ‘승파구를 빛낸 인물’로 선정된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의 사진이 눈에 띈다. 그동안 대산과 지자체선거 관계로 불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승파구청 반야회는 이번 정기인사개편이 마무리되는 것과 함께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9월말 불자가족 성지순례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불자화합을 통해 신행을 증진하자’는 목적으로 96년 12월 창립한 반야회는 현재 60여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달 1회 불공사에서 주지스님을 지도법사로 정기법회와 분기별 사찰순례법회를 갖고 있는 반야회는 열린모임으로 운영하여 무종교인은 물론 타종교인도 행사에 참여할 정도

로 인기가 높다. 특히 사찰순례법회에는 가족들도 참가하여 가정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반야회는 관할구역 사찰의 어려움도 꼼꼼히 파악한다. 사찰의 안내 입간판 문제와 행사시 주차문제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관할구역 사찰의 행사도 참가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다. 4월에 열린 광림사(주지 해성스님) 장애인 체육대회에 구청장을 비롯한 반야회원들이 참가한 것은 물론 찬조금을 전달했다. 또 광림사 수화교실에 승파구청 복지과에서 지원금 2백만원의 전달한 것도 반야회의 추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반야회 유종원회장은 “내부적으로 불자회 활성화를 위하여 콘스님 초정법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연말까지 관내 25개 사찰과 연결할 수 있는 연대단체를 결성하여 사찰에 지원하고 협조할 사항을 파악, 처리하여 유대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조계사 봉선사 직지사 무각사

직장직능법회 원찰로 자리잡아

법회장으로 산문 개방

각 지역의 주요사찰들이 직장·직능법회 원찰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경기지역은 조계사와 봉선사 남양주 봉선사 길상사가 법회장소와 수련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또 김천 직지사와 광주 무각사, 김제 금산사등도 지역 직장·직능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산문을 열어 놓았다. 조계사에는 현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한국예술인불자회 백련장학회 조계종총무원 원우회 서울시청불심회를 비롯하여 정담불자회가 법회를 보고 있다. 또 봉선사는 한국세무사불자회를 비롯하여 강남지역 직장·직능단체들이 신행을 증진하고 있다. 남양주 봉선사는 연평균 20

개 단체에서 수련회를 개최한다. 최근 산문을 연 성북동 길상사는 직장인을 위한 수련회와 시민선방으로 개방하여 직장·직능단체들의 새로운 수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김천직지사가 교사불자회와 운전불자회 법회를 열고 있으며 직장·직능법회에 직지사수련장을 개방하여 50개 단체 7천5백여명의 불자들이 다녀갔다. 광주 무각사도 광주·전남지역 직장법회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무각사는 광주지역 직장·직능단체의 도량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행단체 협의회 구성도 추진중에 있다. 현재 광주불교산악회와 광주운전불자회가 무각사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중이다.

우리 모임에선

연등회 창립2돌 법회

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는 26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02)784-3153

불교언론인회 운영회의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평식)는 16일 12시 다보빌딩 2층 사무실에서 제3차 운영회의를 개최한다. 운영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9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02)719-4083

원광대 佛日동문모임

원광대학교 佛日동문회(회장 차봉기)는 19.20일 교내 학생회관 세미나실에서 정기동문회를 개최한다. 재학생들의 축하공연과 동문법회, 정기총회, 재학생과 졸업생간 친선체육대회가 열린다. (0653)840-1643

‘성원 살리기’ 불심 뜨겁다

서명 15만명 돌파

‘성원 살리기’ 청원 서명불자가 15만명을 넘어섰다. (주)성원살리기 청원서명운동본부(본부장 해홍스님)가 전국사찰에서 펼치고 있는 서명작업은 조계사 한마음선원 구룡사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삼광사 강로사에서 진행중이며 앞으로 봉선사 수덕사 승광사에서도 동참할 계획이다. 또 서울지방법원은 8월 22일 성원에서 제출한 재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7개 계열사중 주력기업인 성원토건 1개사는 화의개시, 6개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탄력을 받은 성원살리기 청원 서명본부는 8일 청와대에 성원의 화의신청을 바란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화의신청이 늦게 처리돼 흑자 부도사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법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법개정안에 따르면 화의신청에서 개시까지는 1개월로 하고 화의 개시 후 1개월동안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의 (주)성원살리기 청원서명본부 (051)816-3680



봉선사 신도들이 성원살리기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사찰과 가정을 “불자비”로 지키십시오



저희 (주)대동소방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각 사찰 및 성모문화재, 그리고 불자여러분의 가정을 화마로부터 지켜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각종 소화기류를 원가로 공급합니다. 특히 금번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불자비” 상표로써 차량용, 부엌용 간이소화기를 시판하게 되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동소방은 불자기업으로서 물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좋은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 것을 약속합니다.

대표이사 **이남재** 외 임직원일동 **습掌**

하른소화기

산업용, 차량용, 부엌용, 범당 400g(불자비, 차량/부엌용) -15,000원 3.0Kg(STAINLESS) -9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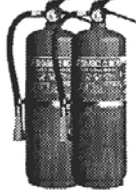
자동차소화기

주방용 3.0Kg-20,000



ABC분말소화기

가정용, 사무실용, 요사채, 선원 1.5Kg-15,000원 2.5Kg-17,000원 3.3Kg-19,000원 4.5Kg-22,000원 20Kg-100,000원



CO.소화기

법당, 요사채, 가정용 2.3Kg-70,000원 4.5Kg-90,000원 6.8Kg-110,000원 23Kg-400,000원



※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거나 소방에 관해 전반적으로 문의하실 분은 항상 저희 대동소방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 LTD
본사: 대표전화 (02)215-0723 FAX: (02)246-8503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714
지사: 대표전화 (0561)772-0729 FAX: (0561)772-3923
경북 김천시 용강동 304-3
공장: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리길 679

예금계좌
서울은행: 28701-3065308 중소기업은행: 015-026140-04-011
상업은행: 178-04-105683 한일은행: 097-147931-13-501
제일은행: 154-20-040173 국민은행: 355-25-0003-678
신한은행: 313-05-014055 축협: 200-72-07640-717
농협: 258-17-000764
예금주 (주)대동소방

전국의 불자 여러분!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일년 후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대동소방은 1994년 창사 이래 소방기자재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매년 100%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교계의 보기 드문 불자 기업입니다.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저희들의 주거래선인 설비업체들의 연쇄부도가 거듭되어 현재까지 그 부도도 인해 당사가 입은 피해액이 1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직원이 불심으로 화합하여 거듭되는 여러번의 위기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지고 그간 당한 부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일시적 위기만 넘기면 저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자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후 시중금리 맞춰 만이천원으로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佛子企業을 키워주십시오. 成佛하십시오.

참고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법보신문 7월 29일자, 불교신문 5월 19일자, 주간불교신문 5월 26일자 및 매일경제신문 7월 1일자 26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방법

- ① 좌측 당사자료로 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그 입금증 사본을 팩스 혹은 우편으로 연락처, 성함을 명기하여 제시하거나
 - ②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던 입금확인후 차용증 혹은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투자금액: 50만원
 - 투자한도: 1인당 1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
 - 투자모집기간: 불기 2542년 7월 20일부터